

지속적인 행사가 추진 되기를 바라며




고 루 시 아*

지난 5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문화소외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“도서관에서 작가/과학자를 만나다” 행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도서관 특성상 “작가”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간혹 있으나 “과학자”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 이 부분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, 조금은 새로울 수 있으리라 여겨 신청하게 되었다. 하지만 막상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엔 신청할 당시의 부푼 기대와는 다른 고민이 생겼다. 도서관에서 문학이 아닌 과학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한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,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그것이었다.

과학이라는 분야가 성인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계획하였고, 협회에서 연결시켜 주신 최동국 교수님과 강의 수준, 내용 등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다. 교수님께서서는 중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“유전자와 생명과학”이라는 약간 어려운 주제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또한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, 재미있고 다양한 사진들을 이용하여 강의를 해주셨다.

대상 학교에서는 강연회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강연 내용을 적어 내라는 과제를 내 주는 등 강제(?)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였고, 지역신문사에 직접 홍보를 하는 등 강연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.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“도서관에서 작가/과학자를 만나다” 행사가 단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, 또한 작가, 과학자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.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인식되어지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.

마지막으로 “도서관에서 작가/과학자를 만나다” 행사를 통하여 직접 작가, 과학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도서관협회에 감사를 드린다. 



* 동녕도서관 사서, klucya@hanmail.net